



"낙하산 물러가라"... 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신임 행장 3일째 출근 저지

기사입력 2020-01-07 11:17 최종수정 2020-01-07 11:20

지난 3일 IBK기업은행장에 임명된 윤종원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노조 반발로 출근이 막혀 3일째 정상 업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낙하산 행장 저지"를 외치며 윤 행장이 사퇴하기까지 출근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노조원들의 출근 저지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IBK기업은행지부 노조원 100여 명은 7일 오전 7시 쯤부터 서울 을지로 본점 후문을 가로막고, 윤 행장의 출근을 저지했다. 윤 행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본점 지상 주차장에 도착해 후문 앞에서 김형선 노조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노조의 '대화 거부' 방침으로 2~3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노조원들은 윤 행장을 향해 "낙하산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업은행 사측 관계자들은 "(노조와) 대화하러 왔으니, 김 위원장은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출근이 막힌 윤 행장은 지난 2번의 출근 저지 때와 마찬가지로 본점 집무실이 아닌 서울 삼성동 금융연수원에 마련한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기로 했다. 그는 노조의 출근 저지가 계속되더라도 본점 출근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세 번의 은행장은 모두 내부에서 행장을 선임했으나, 이번 신임 행장 인사에선 외부 인물인 윤 신임 행장이 선택됐다. 행시 출신인 윤 행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홍장표 전 경제수석에 이어 두 번째 경제수석을 지냈다.

청와대는 낙하산 논란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우리 정부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조는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는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반노동적·반민주적 행태"라며 "2013년 기업은행장으로 기획재정부 관료가 내정됐을 때, 관치는 독극물이라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번 낙하산 인사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반발했다.



7일 오전 IBK기업은행 노조 조합원들이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본점 후문을 막고 있다./금융노조 IBK기업은행지부 제공

지난달 24일 금융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홍배 당선인은 "금융노조 새 집행부의 첫 사명은 기업은행의 낙하산 행장 저지"라며 "청와대가 금융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총선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우리 금융노조와 정책 연대를 하면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그때의 약속을 무시하고, 관료 출신 새 행장을 선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윤 신임 행장은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학 석사와 미국 UCLA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재무부 저축심의관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산업경제과장,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명전권대사, 연금기금관리위원회 의장 등을 거쳤고, 지난 2018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았다.

[박진우 기자 nicholas@chosunbiz.com]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3&aid=0003498625>
